

“편안한 일상의 고마움, 느리게 살 때 행복감”

양세종·우도환 “대본 접하니 가슴 뛰어”

여말선초 격변기 다룬 사극 '나의 나라' JTBC 내일 첫 방송



배우 양세종(왼쪽)과 우도환

1992년생 동갑내기 2년 전 '슈퍼카'로 단박에 스타로 떠오른 젊은 두 남자 배우, 양세종(27)과 우도환이 만난다. JTBC 새 금토극 '나의 나라'에서다.

양세종과 우도환은 2일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에서 열린 JTBC 새 금토극 '나의 나라' 제작발표회에서 “대본을 접하고 가슴을 뛰어 작품을 선택했다”고 입을 모았다.

격변의 시대, 여말선초를 배경으로 하는 이 드라마에서 양세종은 신념 앞에서라면 죽음을 불사하는 무사 서휘 역을, 우도환은 계급을 뛰어넘어 새 세상을 꿈꾸는 서일 남선호 역을 맡았다. 여기에 김설현(24)이 연기하는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여장부 한희재까지, 각각의 신념을 가진 주인공들이 난세를 헤쳐가며 자신만의 나라를 찾아간다.

사극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베테랑 연기자 김영철과 장혁은 각각 이성계와 이방원으로 분한다.

작품을 위해 길게 기른 머리를 묶고 나타난 양세종은 “각각의 인물들이 서사가 있고 각자가 가진 신념이 뚜렷하다. 1회부터 드라마가 끝나기까지 그런 신념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혹은 인물들이 신념을 어떻게 지키려고 하는지, 그런 과정들이 재미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드라마 시작하기 전부터 우도환과



2~3개월 액션스쿨에 나가 연습했다”며 화려한 액션 연기도 예고했다.

우도환은 출연 계기에 대해 대본 외 요소로 양세종을 꼽았다. 그는 “세종이와 저, 두 배우가 언제 같이 작품을 할 수 있겠나 싶었다. 우리가 만나서 좋은 시너지를 내면 재밌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4년 만에 드라마에 출연하는 김설현은 “한희재 캐릭터가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소신 있고 강단 있는 모습,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 멋있게 느껴졌다”며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싫어하는 모습이 저와 비슷한 것 같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연출을 맡은 김진원 PD는 양세종과 우도환, 두 배우의 연기 스타일을 야구의 직구와 변화구로 설명했다.

김 PD는 “양세종이 정교하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는 연기를 한다면 우도환은 신속하게 직구를 던지는 타입이다. 두 배우가 같이 호흡하면서 서로 땀을 나누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나의 나라'는 4일 밤 10시 50분 JTBC에서 첫 회 방송을 시작하며 넷플릭스로도 볼 수 있다.

신작 앨범 '플로' 발표 싱어송라이터 이상은

'담다디' 무게 벗고 유랑 문화 고수들에 영감 얻어 음악엔 치유의 힘 있어야



'삶'의 시작은 '역지로'였다. 외동딸인 그는 충남 공주에 계신 아버지가 편찮아 지자 분가로 내려갔다. 집안일을 거름다 보니 나라가 국정 농단 사태로 시골벽적했다. 그런 상황에서 음반을 낼 수 없었다. 시골의 평온함에 '은퇴할까'란 유희도 살짝 들었다.

음악과 거리가감에 친숙해질 즈음, 고요를 깨는 계기가 있었다. 지난해, 오랜 팬의 편지를 읽고서다. '언니는 유유자적하며 산다'란 글귀가 뇌리에 남았다. 좋은 뉴스였지만 '뭔가를 열심히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다?'란 자각을 했다.

5년이 걸려 새 앨범 '플로' (fLoW)를 발표하는 싱어송라이터 이상은(49) 얘기다.

"휴게(Hygge·아늑함, 편안함을 뜻하는 덴마크어) 라이프를 오래 하다 보면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이지 않아요. 하하. 신곡 듣고 싶은 팬들에게 옛날 노래만 부르는 아티스트로 보이는 것도 부끄럽고요."

마포구 서교동 한 카페에서 만난 이상은은 말에 꾸밈이 없었다. "낮가림이 심하다" 했지만, 상대를 배려하는 화법이었다고, "귀가 얇다" 했지만, 소신이 뚜렷했다.

그는 평소 행복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다. "OECD 국가 중 우리가 자살률 1위란 건 사회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이라고 느낀다. 테크놀로지 범람 시대, 새 노래가 스트레스받는 이들에게 "포근한 곡제가 이불이 되길" 바랐다. "사람은 원래 좀 느리고 느긋할 때 행복감이 느껴지는 것 아닐까요."

첫 트랙 '릴랙스' (Relax)가 힐링의 문을 연다. '릴랙스 릴랙스 릴랙스 내려놔 놓아'. 피아노 선율에 내려앉은 담백한 창법이 최면을 거는 주문 같다.

한 곡 한 곡 단비처럼 뿌리는 '토닥임'에 푸석한 마음이 촉촉해진다. 소박한 일상의 소중함('일상 노마드'), 희미해진 어른의 동심('가을 수채화'), 관계에서 다친 마음('플로')을 때만지는 손길이 능숙하다.

그는 음악에도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자신도 경험한 치유의 힘이다. 고3 시절 야간 자율학습 시간 강당에 몰려 들어가 노래하며, 운동장 한가운데 누워 AFKN으로 팝을 들으며 승통이 트이는 해방감을 느낀 기억이 있다.

위로를 떠안는 사운드는 '순맛' 있는 편곡자들 덕에 '감칠맛'이 살았다. 전작인 15집 '무루' (2014)에선 '나 홀로' 편곡에 홈레코딩을 했다면, 이번엔 이규호, 강이재, 언니네이발관의 이능룡, 박성도가 편곡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전자 사운

드나 바이올린, 만들어진 연주를 넣는 '재주'로 색채를 늘렸다.

그는 "모두 예상의 편곡이었다"며 "데모곡의 '키 프레이즈' (key phrase·핵심 멜로디 라인)를 살리고 각자 색깔을 더해 상상하지 못한 사운드를 만들었다. 어린 시절엔 내 음악을 장악하려 한 때도 있었는데, 상대에게 열어주니 아이디어가 섞여 훨씬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근래 평범한 삶에 발을 붙였지만, '삶은 여행'이란 그의 노래처럼 이상은은 '노마드 아티스트'였다.

1988년 MBC 강변가요제에서 '담다디'로 대상을 받은 지 30여년. 전두환에서 노태우 정권으로 6공화국이 출범하고, 88서울올림픽이 열려 사회가 약진하던 그해, 그는 단연 '핵심씨' (무리에서 아주 잘 지내는 사람이란 뜻)였다. '선머슴' 같은 외모에 경충한 키로 탬버린 춤을 추던 모습은 '문화 종적'이었다.

"록밴드 컴쳐클럽의 보이 조지를 좋아해 그 춤을 따라 춘 것이었죠. 하하."

그러나 이상은은 쏟아진 시선을 감당하지 못해 1991년 미국 뉴욕으로 훌쩍 떠났다. '담다디' 시절엔 "방전된 에너지, 예민함을 자극하는 고통, 신경이 타들어 가는 고역의 추억"이다.

시골벽적한 삶에서 탈출한 그는 뉴욕 프랫 인스티튜트에서 미술 공부를 했다. 그런데 정작 뉴욕에서 음악의 신세계를 경험했다. 라디오를 틀면 나오는 트레이시 채프먼, 밥 말리, 수잔 베가 등 '다른 레벨' 음악에 "기절초풍할 것" 같았다. 점점 이젤에서 멀어졌다. 이곳에서 낸 3집 (1991)부터 그는 싱어송라이터로 '내안의'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다시 뉴욕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20대의 6년은 "음악 그 자체에 포커싱이 맞춰진" 시기다. 재일 교포 작가 강신자 씨와의 만남이 계기였다.

"제 3집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는 강신자 언니 말에 일본 구마모토현에 놀러 갔어요. 그분 덕에 스튜디오가 있었는데, 이후 '크로스비트아시아'란 민간 문화 교류 운동도 펼쳤죠. 그곳에서 공연하고 앨범도 내며 언니 덕에 사회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뜨면서 온전히 음악에 매몰될 수 있었어요."

돌아보니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그는 30년 반향점을 둔 지금을 이렇게 비유했다. "쉽없이 생각하던 토양도 휴작기가 있어 영양소 풍부한 농작물을 길러낸다는 것."

"19살에 데뷔해 '워라밸' (Work-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도 모르고 활동에 에너지를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음악을 일로 보는 시기도 있었죠. 안식년을 보내다 다시 의욕이 생겨요. 가족을 방치하다시피 살다가 부모님과 시간 보내며 '인생에서 중요한, 소소한 행복'도 깨달았고요. 더 좋은 생산을 하려면, 낙수처럼 떨어지는 작은 영감을 시원하게 마시려면 강박과 압박감 없이 느리게 보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연합뉴스

TV프로그램 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모두 다 쿠퍼리(재)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장모
9	30 KBS 뉴스	00 여름아 부탁해(재) 40 무한리플 샐러드	30 930 MBC 뉴스 55 제4351주년 개천절 경축식	10 좋은아침
10	00 제4351주년 개천절 경축식 45 팔도밥상 스페셜	40 슈퍼맨이 돌아왔다(재)	50 전지적 참견 시점 스페셜	10 배가본드(재)
11	00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특집 서울, 운동장			
12	00 KBS 뉴스 10 특집 다크 매혹의 실크로드 <제4편 바람의 길>	10 동백꽃 필 무렵(재)	30 MBC 뉴스 40 놀면 뭐하니?	00 SBS 뉴스 4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재)
1	00 사랑의 가족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20 개그 콘서트(재)		50 2019 프로야구 와일드카드 1차전
2	00 KBS 뉴스 10 꼬마이사 콩도령 2 40 시노스톤	40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재)	00 어쩌다 발견한 하루(재)	
3	10 KBS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사장님이 미쳤어요		15 MBC 뉴스 25 나 혼자 산다 스페셜	
4	00 UHD 숨터 05 국군의 날 특집 충천, 하늘 높이 오르다(재)	05 살림하는 남자들(재)		
5	00 KBS 뉴스 5 10 미니디Q 30 전국을 달린다 40 2019 KBS광주연중특별기획 남도스페셜	10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재)	05 신비한TV 서프라이즈 스페셜	30 맨 인 블랙스(재) 50 시크릿 부티크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7	00 KBS 뉴스7 40 BIFF 2019 개막식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품지락
8	30 여름아 부탁해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어쩌다 발견한 하루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10	00 다크인사이드 55 더 라이브	00 동백꽃 필 무렵	05 섹션 TV 연예통신 1~2부	00 시크릿 부티크
11	35 UHD 숨터 40 여가인 가요톱10	10 해피투게더 1~2부	15 어쩌다 발견한 하루	10 접속! 무비월드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스포츠 다이아리 45 문화사색	20 나이트라인 50 테마스페셜(재)

EBS1

07:00 코코몽3	12:10 말을 걸어볼까? 동남아 살아보기	17:45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재)
07:15 미스터리아	13:00 다크 시선	18:00 생방송 특!톡! 보니하니
07:30 뽀로로와 노래해요	13:55 발견의 기쁨 동네책방	19:00 미라클러스: 레이디비그와 블랙캣
08:00 똥덩쿨 유치원	14:45 지이언트 팽TV(재)	19:30 생방송 판다다
08:30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	14:55 미스터리아	20:00 4남매 쇼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5:10 코코몽3(재)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동남아 소수민족 기행 -전사의 부족 타우이>
09:00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	15:25 트리푸름	21:30 한국기행 <시골 부자 4부 시골 마을 뺑~터졌네>
09:30 지이언트 팽TV	15:55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재)	21:50 다크 시선
09:40 아기 동물 귀여워	16:10 예술아 놀자	22:45 말을 걸어볼까? 동남아 살아보기
10:00 지식의 기쁨	16:25 올리 앤 문재)	23:35 발견의 기쁨 동네책방
10:30 한국기행(재)	16:45 똥덩쿨 유치원(재)	24:24 지식의 기쁨(재)
10:50 최고의 요리결	17:00 EBS 뉴스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뒤지 뮤직박스	
12:00 EBS 정오뉴스	17:30 페퍼 피그(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3일(음 9월 5일 癸酉) ☎ 010-9790-8237

<p>36년생 우선 가장 급한 일부터 처리하고 불 일이다. 48년생 준비해둔다면 결정적인 시기에 역발할 것이다. 60년생 동선 주목하라. 72년생 두드러라. 74년생 열릴 것이다. 84년생 목표를 향해 진일보하라. 96년생 융통성을 발휘하여 파격적으로 처리해야 할 때다.</p> <p>행운의 숫자 : 32, 27</p>	<p>30년생 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리라. 42년생 낙담하게 준비해 두라. 54년생 상대의 뜻을 받아 줌이 결과적으로 나를 것이다. 66년생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는 취약점이 보인다. 78년생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속고 불 일이다. 90년생 삼중고에 시달릴 수 있는 약재가 보이니 마음을 다잡아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3, 41</p>
<p>37년생 작은 일에 발목이 잡혀서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 49년생 차선책을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하라. 61년생 바빠서 시간을 쪼개어 쓰느라고 애를 먹겠다. 73년생 마지막에 안타를 치는 이치이다. 85년생 오랫동안 갈구하여 왔던 힘의 기반이 생길 것이다. 97년생 상대의 장난이 보인다.</p> <p>행운의 숫자 : 84, 66</p>	<p>31년생 지극히 당연한 것이어서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43년생 지금의 판도가 무방해했다. 55년생 비웠을 때 더 많이 채워지는 법임을 명심하라. 67년생 거두어들이는데 있어서 새어나가는 것이 없는지 살펴봐라. 79년생 임시 상황이니 전혀 과념치 말라. 91년생 봉합되기도 전에 또 다른 것이 터지리라. 행운의 숫자 : 46, 33</p>
<p>38년생 당면한 현안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라. 50년생 실효적이고 필수불가결하다는 사실을 알라. 62년생 예상해 왔던 구도와 동떨어지게 된다. 74년생 모순된다면 양자 모두를 저지하는 것도 방법이다. 86년생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 하리라. 98년생 머지않아 적용하게 될 것이니 목욕히 임하라.</p> <p>행운의 숫자 : 61, 56</p>	<p>32년생 대범하게 넘어가도 된다. 44년생 길질을 이끄는 요인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 56년생 이 보 전진을 위해서 일 보 후퇴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68년생 정반대의 시각으로 바라보다면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80년생 크게 염려할 바는 아니니 안심하라. 92년생 연쇄적인 인연에 놓여 있음을 알라. 행운의 숫자 : 09, 39</p>
<p>39년생 이룰 수 있는 조건이니 놓치지 말라. 51년생 결실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조조도 멀었다. 63년생 가까운 곳부터 손질을 하는 것이 좋다. 75년생 대단히 흥겨운 날이 될 것이다. 87년생 국면의 전환이 효과적이다. 99년생 한꺼번에 물리는 형태이다.</p> <p>행운의 숫자 : 45, 04</p>	<p>33년생 한 동안 잠잠했던 현상이 다시 시작 되면서 괴로움을 준다. 45년생 현재 상태대로 만 진행하면 더할 나위 없었다. 57년생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리라. 69년생 열린 마음으로 논의 한다면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다. 81년생 낙관적인 정황만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 93년생 듣다보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5, 29</p>
<p>40년생 집착을 버리고 진용을 정비하는 것이 이익이다. 52년생 두루 살펴보고 관심을 갖는 것이 용이하라. 64년생 입장을 바꾸어 놓고 보면 모두가 납득하라. 76년생 인연을 소중히 여기다 보면 길사가 중중하리라. 88년생 풍성한 소득을 가져오는 성공의 마당이다. 00년생 집요해야 이루어 질 것이다.</p> <p>행운의 숫자 : 20, 21</p>	<p>34년생 상대의 뜻을 최대한 존중함이 순조롭다. 46년생 수 용 여부를 가지고 상당히 고민 하겠다. 58년생 충동적인 판단이었다면 재고 해볼 여지가 있다. 70년생 정도를 걸으면 불발이로다. 82년생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94년생 비운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47, 20</p>
<p>41년생 행보에 따른 변수가 커다란 영향을 미치리라. 53년생 파생된 결과는 미래에 대한 교두보가 되겠다. 65년생 목표점에 진입하고는 있으나 현재의 판세로는 변수가 있다. 77년생 흥왕의 기운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느니라. 89년생 결과물이 도출되는 기쁨을 맛보겠다. 01년생 오버 센스 하다가는 허방을 짚을 수도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43, 50</p>	<p>35년생 지속 된다면 큰 성과를 거두리라. 47년생 실효적인 추가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59년생 다자 관계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고뇌가 보인다. 71년생 지나간 일이 화젠 거리로 대두되나 대수롭지 않다. 83년생 거친 풍량이 밀려 오고 있으니 안전하게 대피하라. 95년생 형세를 뒤집을만한 신선의 새싹이 아름답기 그지없다. 행운의 숫자 : 37, 73</p>